석전 박한영 스님 독립운동 행적 발굴 실마리 찾았다

동국대 석전전서사업단 간담회서
新 발굴 '석전속시초' 내용 공개

석전 스님 임제종 운동 매진했던
1911년 광주감옥 투옥 사실 확인
"독립유공자 등재 단초 중요 자료"

韓中불교사 시 읊은 '영사시' 주목
사업단 7월 3일 관련 세미나 개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내 평생 만난 극심한 곤란은 세 번 있었다. 그 하나는 신해년(1911) 여름, 법망에 걸리는 액운을 만나 저 광산 감옥(광주교도소)에 들어가 귀신 무리가 돼 70여 일 갇혔다가 풀려난 것이다.(顧惟生平所遭甚難 爲三處也 其一去辛亥夏 令以鴻罹之厄 入佗光山圜扉中 爲鬼徒也 而消受七十殘日以得放)"

새롭게 발굴된 석전 박한영 스님(1870~1948)의 한시집 〈석전속시초〉 '안료원중잡감(眼療院中襍感)'13장 서문의 일부다. 1911년 당시 석전 스님은 임제종 운동에 매진했던 시기로, 스님의 회고는 공식 연보에도 없는 기록이다. 이는 이회광과 대립하며 임제종 운동을 펼쳤던 석전 스님의 독립운동 행적 발굴에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 석전 박한영 스님 전서편찬사업단(소장 김상일, 이하 석전전서사업단)은 5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석전 스님 전서 편찬 과정에서 새롭게 발굴된 〈석전석시초〉의 내용을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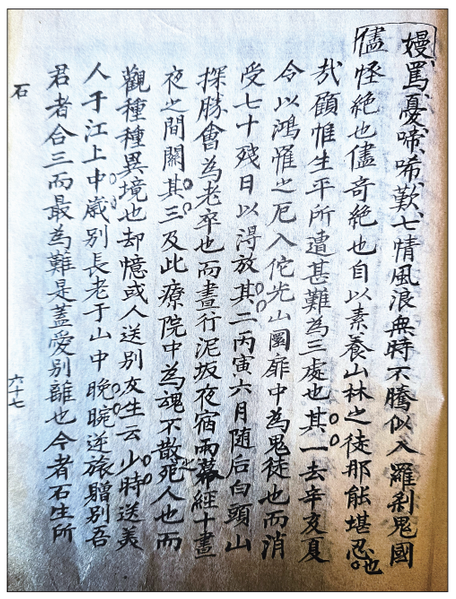
사업단에 따르면 석전 스님의 시집으로는 〈석전시초〉가 있고, 문집으로는 〈석전문초〉가 전해진다. 〈석전시초〉(동명사刊, 1940)는 석전 스님의 칠순을 맞아 최남선이 엮고 연활자본으로 간행한 시집으로 약 600수의 한시가 실려 있다. 새로 발굴된 〈석전속시초〉에는 1939~1945년 지은 한시 201제 405수가 수록됐으며, 기존의 〈석전시초〉 600여 수와 합하면 석전 스님의 한시 총량은 1000여 수에 이른다.

특히, 석전 스님의 독립운동 행적을 발굴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된 점이 주목된다. 〈석전속시초〉 '안료원중잡감'13장은 석전 스님이 병원에서 눈 수술을 하며 고생했던 소회를 담은 7언 절구의 한시다. 한시의 서문에서 석전 스님은 1911년 광주 감옥에서 70여 일간 투옥됐던 사실을 술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진 석전전서사업단 팀장(불교학술원 부교수)은 "석전 스님은 자신의 인생에 세 번의 고통이 있었음을 술회했는데 첫 번째가 1911년 광주 감옥 투옥"이라며 "당시 광주 감옥에는 남자 300명 여자 300명 등 600명



근대불교 선지식 석전 박한영 스님(1870~1948)의 진영. 선운사성보박물관 소장.


1911년 광주 감옥에 수감돼 고초를 겪은 사실을 술회하는 석전 스님 한시의 서문 중 일부.

이 투옥된 것까지는 확인됐는데 석전 스님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70여 일간 구류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투옥 사유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회광의 원종과 대립해 임제종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석전 스님이 중심이 됐던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은 만해 한용운 스님이 임시 관장을 맡은 것이 강조돼 석전 스님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축소됐다"면서 "석전 스님은 불교계 안팎으로 많은 일을 하셨지만, 독립운동 행적이 확인되지 않아 독립유공자에 수훈되지 못했다. 이번 자료는 석전 스님을 독립유공자로 등재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사업단은 〈석전속시초〉에 수록된 한시들의 특성도 소개했다. 영사시(詠史詩)의 경우 한국과 중국불교 역사를 시로 노래해 눈길을 끈다. 영사시를 담아낸 것은 '영시사(詠詩史)' 7장과 '고사시관(故事詩觀)' 45장이다. '영시사'는 불교시의 역사를 읊은 한시로 중국 시인 구양수·주돈이·사공도·두보·왕유·도연명 등과 불교시의 관련성을 한시로 품평했다.

'고사시관'은 중국과 한국의 불교사를 인물 중심으로 펼쳐낸 한시들이다. 중국불교 인물 24인, 한국불교 21명을 표제로 했다. 중국은 불경을 싣고 온 마등과 축법란부터 명나라 우익에 이르며, 한국은 아도 화상부터 조선의 초의·복초 스님 등까지 불교사와 고승의 행적을 노래했다.

선 수행 과정을 열 폭의 그림으로 그려낸 '십우도'를 시적으로 해석한 '십우송(十牛頌)'도 주목할만한 작품이다. 5언고시 10수, 7언절구 10수로 구성된 '십우송'은 만암 스님의 권유로 1943년 지은 것이다.

김상일 석전전서사업단장(한국문학연구소장)은 "석전 스님은 한시를 쓸 때 한 수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십우송에서는 선사상의 깊이를 알 수 있다"면서 "그동안 알려진 경허, 만해 스님의 십우송에 석전 스님의 십우송을 더함으로써 근대 선시의 자료를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사물들을 시적으로 형상화 한 영사시와 근대 선지식들과 석전 스님의 교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들도 다수 확인된다.

한편, 석전전서사업단은 7월 3일 동국대 고순청세미나실에서 제2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신규 발굴한 〈석전석시초〉에 대한 상세한 해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땅설법과 세계 불교 속강 면면 살피다

땅설법학회 국제학술대회
빅터 메이어 등 석학 강연
인도, 동아시아 속강 조명

'속강(俗講)'은 중국 당나라 중기 이후 스님들이 속인을 대상으로 도심에서 행한 설법이다. 문자를 몰랐을 대중에게 알기 쉽게 부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경전의 내용을 전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노래와 춤, 연극 등의 예술과 기예들이 적용됐다. 이는 송나라에 이르러 대중화 되며 강창 문학(講唱文學)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삼척 안정사(주지 다여 스님)에 전해져 오는 '땅설법'은 '속강'의 전형으로, 현재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는 불교 속강이다. 이 같은 '땅설법'과 세계 불교 속강의 연계성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땅설법학회(회장 김용덕)는 5월 5일 삼척 안정사에서 '세계의 속강과 땅설법'을 주제로 제2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학술대회는 인도와 동아시아에 전해지는 불교 속강의 연원과 전개 양상들을 살폈다. 특히 빅터 메이어 미국 펜실베니아대 교수는 '그림과 함께하는 이야기 역사: 인도에서 유라시아 전역까지'를 통해 중국 민간 문학의 한 장르인 '변문(變文)'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속강 문화가 인도에서 동아시아로 전해졌는지를 살폈다.

메이어 교수에 따르면 변문의 '변(變)'은 불교의 본체론에서 말하는 인간·동물 등 다양한 형상과 장면의 현현을 의미하고 이러한 변신의 현현이 두루마리나 벽화 등에 묘사됐다.

메이어 교수는 "진정한 '변(變)'은 민간 문학이자 그림 이야기의 한 형식으로, 백화문, 설창, 삽화가 결합된 특징을 가진다"면서 "'변의 공연'은 그림을 활용한 구연(口演) 형식의 서사 공연이며 인도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고미네 가즈아키 일본 릿쿄대 명예교수가 '일본의 관심 십계만다라도와 에토키 : 감로도와의 비교를 통해', 전홍철 우석대 교수가 '고대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시각적 강창 연행', 전영숙 연세대 중국연구원 전문연구원이 '땅설법 법구의 역사성과 개방성 : 다양한 교구 활용을 중심으로',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이 '땅설법 〈수달기정사품〉의 교리·신앙적 정합성'을 각각 발표했다.

신중일 기자

상월결사 문화공연법회 "우리가 멈춰야할 때"

10일 의정부예술의전당서 초연
진우 스님 "'멈춤'으로 자각을"


사진 제공=상월결사

(사)상월결사가 한국불교 중흥을 염원하며 문화공연법회를 선보였다.

상월결사(이사장 호산 스님)는 5월 10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우리가 멈춰야 할 때:PAUSE' 초연 무대를 펼쳤다.〈사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한 생각 멈추면 온 우주가 고요해진다'는 이번 문화공연의 주제는 '선명상' 정신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면서 "잠시 멈춤은 곧 깨어남의 시작이다. 불자 뿐 아니라 종교를 초월한 많은 이들이 무대를 통해 자기 삶 속에서 '멈춤'을 통해 고요한 자각에 이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가 멈춰야 할 때:PAUSE'를 주제로 한 이번 공연은 △NONSTOP:무명의 순수 △SCREAM:혼돈과 파열 △PAUSE:쉼의 문턱 △PLAY:해탈의 길로 구성됐다. 어린시절 진심으로 웃고 뛰놀던 순수한 기억이 디지털에 잠식되는 여정 속에 견딜 수 없는 내면의 분열을 경험하고, 모든 것이 멈춘 순간 내면의 목소리를 경험한 후 회복하는 이야기가 담겼다.

소리꾼 최예림, 가수 길대호, 아역배우 문성구, 무용수 김여주를 비롯해 상월비보이, 상월청년합창단, JH콰이어 등이 함께했다.

공연은 △6월1일 구미문화예술회관 △6월14일 논산훈련소 △6월21일 부산시민회관 등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한국불교학회, 학술상 제정…"불교학에 활기를"

5월 20일~9월 20일 접수
첫 주제 '의상을 말하다'
10월 추계학술대회서 발표

(사)한국불교학회(회장 자현 스님)가 불교학 인재 양성과 저변 확대를 위한 학술상을 제정했다.

한국불교학회는 5월 14일 서울 중구 월정사 불교문화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교학 진흥과 발전을 위해 '한국불교학회 학술상'을 제정하고 우수 논문들을 공모·시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불교학회에는 한암상, 탄허학술상, 성운학술상 등 총 4개의 학술상을 운영하게 됐으며, 불교계 학회 중에서 가장 많은 학술상을 운영하는 단체가 됐다.

새로 제정된 '한국불교학회 학술상'은 매해 다른 주제를 선정해 우수 논문들을 공모·시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모자격은 한국불교학회 정회원으로 불교학 분야 석사 이상 연구자다. 대상 1명에게는 300만원, 최우수상 1명에게는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수상자는 논문 공모 편수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학술상 시행 첫 해인 올해 주제는 의상 대사 탄신 1400주년을 기념해 '의상을 말하다'로 정했다. 논문 접수는 5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이뤄지며, 수상 발표는 9월 30일 이전 개별 통보된다.

시상식은 10월 24일 예정된 추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되며, 수상자는 학술대회에서 수상 논문을 발표하게 된다. 또 학회 학술지인 〈한국불교학〉에 특집으로 게재된다.

신중일 기자

불교상담학회, '인생 각본과 바사나' 워크숍

5월 24일 동국대 WISE캠서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안양규)는 오는 5월 24일 오전 10시 동국대 WISE캠퍼스 100주년기념관 501호에서 '제2회 한국불교상담학회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내면 성장과 치유: 교류분석과 불교상담의 만남'을 주제로, '인생 각본(Life Script)과 바사나(vasana) 알아차리기'를 중심으로 한 심화 탐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워크숍은 총 6개의 세션으로 구성돼 오전에는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내면의 나를 초대하기'와 '자아상태와 무아상태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이론적 기반을 다진다. 오후에는 본격적으로 인생 각본과 바사나 개념을 이해하고, 감정적 태도와 삼독(탐·진·치)에 대한 통찰을 확장하는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비는 일반 참가자 10만 원이며, 특임이사는 5만 원, 일반이사는 7만 원, 학회회원은 8만 원이다. 참가 신청은 전화(010-3465-7107)로 가능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천태종, 전통예술·사진 진흥 공모전 연다

예술공모, 10월 15~16일
사진공모, 9월 17~24일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제10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운영위원회와 제7회 천태사진공모전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0회 천태예술공모대전'과 '제7회 천태사진공모전'을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0회 천태예술공모대전 공모 부문은 △전통불화 △현대불화 △조각·공예 △민화 등이며, 작품 접수 기간은 10월 15~26일(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다. 작품은 서울 관문사(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 2층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10월 말 경 금강신문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수상자에게는 개별 통보한다. 수상작은 12월 3~8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전시한다. 시상식은 전시회 기간 중 열릴 예정이다.

'제7회 천태사진공모전'은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공모 주제는 △소백산국립공원 △단양 지역 자연 풍경 △사찰 및 불교정신을 담은 작품 △천태종 관련 작품 등이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출품 시 △작품명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를 기록한 파일을 작품과 함께 이메일(cheontaecmb2@kakao.com)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10월 중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금강신문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02-723-1559

신중일 기자

반야불교문화硏 제15회 반야학술대상 공모

오는 6월 15일까지 접수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 대종사)이 제15회 반야학술대상 수상후보자를 공모한다.

반야학술대상은 불교학 및 불교문화 분야의 연구 발전에 기여한 중견급 이상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수여되는 상으로, 최근 7년간의 탁월한 연구 업적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2일에 열린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이며, 자세한 응모방법은 반야불교문화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반야학술대상은 불교의 지혜인 '반야(般若)'의 가치를 현대 학문 속에 조명하고자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학술상으로, 국내 불교계의 권위 있는 연구 시상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